

본 뉴스레터는 경영컨설팅학과와 지식서비스 연구소의 정보 공유와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발행처 : 경영컨설팅학과 / 지식서비스연구소

경영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연구소 IKS 행사안내

교수님 인사말씀



이성욱 교수님
인사말씀

해외전문가 초청 강의



박영기 교수님
-오하이오 애크런
주립대학 경영학과

지식서비스 연구소 소개



김정훈 연구원
소개 및 인터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인터뷰

- 박사 2기 한상욱
- 석사 4기 최소연
- 석사 3기 주민정
- 석사 4기 김태형
- 석사 4기 우리라

하계 KOTRA 인턴

- 대상 : 경영컨설팅학과 1~3기 석사 풀타임학생
- 인턴 기간 : 2013년 7~8월

이성욱 교수님 인사말씀



경영컨설팅 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욱 교수입니다. 벚꽃이 학교에 아름답게 필 때가 엇그제 같은데 깜짝할 사이 1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시험이 끝나고 힘들었던 대학원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방학은 단지 쉬는 기간이 아니라 지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학기 초에 세웠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잘 생활하였는지 반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학과 공부에 집중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과 다변량분석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루 24 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격차가 작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학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경영컨설팅 학과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연구실 공부, 해외 인턴,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학을 맞아 내가 진정 해보고 싶은 것, 내가 간절히 해보고 싶었던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2학기 개강 때는 한층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교수 이 성 욱

해외전문가 초청강연

강연자	박영기(YoungKi Park)
	오하이오 애크런 주립대학 경영학과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Akron, Ohio USA
강연주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향후 전망
일시	6월 12일 (수) 18:30~21:30
장소	경상대 207호

박영기 교수는 빅데이터의 간략한 소개를 비롯하여 빅데이터 이슈 및 활용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박영기 교수는 빅데이터를 컨설팅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며, 강의 중간 중간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학생과 소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 데이터마이닝이나 통계와 같은 분석기법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아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근거한 끊임없는 실험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기업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는 말을 끝으로 박영기 교수의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지식서비스연구소 소개 - 김정훈 연구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지식서비스연구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연구원입니다. 지식서비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컨설팅대학원 및 지식서비스 연구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경영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 3차년도 연차평가를 받기 위해 김민관박사님과 윤은주선생님을 도와가며 처음으로 감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상의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 있고 뿌듯했었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연산클러스터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행사 및 세미나가 아니면 학생들을 마주칠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사를 주고받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학생들이 학과 행사 및 세미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으로써의 자세, 각오

2013년 6월 26일이 만 1년 근무하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경험했지만 앞으로 경영컨설팅대학원 및 지식서비스연구소와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모습보다는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학과 및 연구소발전에 보탬이 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재학생 소개 - 박사 2기 한 상 욱



본인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임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한상욱입니다. 2012년 가을에 입학하여 이번에 2번째 학기입니다. 현재 분당구 야탑에 위치한 전자부품연구원 경영기획실에서 선임행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학기를 마친 소감

2013년 1학기를 마치면서 마음으로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지도교수님이 정해지면서 논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초부터 지도교수님과 매주 미팅을 통해 논문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것 보다 너무나 진도가 더디어서 심적으로 논문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학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주제에 대한 논리를 세우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2013년 후기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학위 과정에 대한 계획과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세부목표를 정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 그룹으로 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과 그룹을 결성하여 각자 목표와 그에 대한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임(학기 초, 중간고사 후, 기말고사 후)을 통해서 서로 진도를 점검하신다면 놀라운 생산성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2학기 계획

현재 진행 중인 논문을 마칠 계획이면, 2학기에는 4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학우들과 끈끈한 정을 나눌 예정입니다.

재학생 소개 - 석사 3기 주 민 정



본인소개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 학과 석사과정 3기 주민정입니다. 현재 기업교육컨설팅 업체인 베스코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 대림대학교 행정서비스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컨설팅학과 대학원에서는 김상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창조경영, 창의적 문제해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학기를 마친 소감

대학을 졸업하고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석사과정에 입문한지 3학기가 흘렀습니다. 몇번을 망설이다 다시 시작한 공부이기에 경영 컨설팅학과에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한학기만을 남겨 놓고 보니 내 눈앞의 상황을 학교 공부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부분이 후회가 남습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학생들은 두가지 일을 함께 하다보니 선택의 기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무조건 대학원 공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종종 눈 앞의 이익을 땀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2013년 후기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제는 IQ, EQ를 넘어서 NQ라고들 말합니다. 인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기회는 적습니다. 이곳에서 20대 풀 타임학생들과 4~50대 파트타임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순수함과 열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대학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영컨설팅학과에 와서 현재까지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멘토도 만났습니다. 신입생 누구에게나 2년 혹은 3년이라는 시간은 주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엇을 얻어가는지는 각기 다릅니다. 저의 멘토이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원 졸업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누구든 얻게 되는 것이다. 경쟁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그 기간동안 남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이죠..입학하시는 후배님들께 저희 경영컨설팅학과가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학생 소개 - 석사 3기 주 민 정

이제는 IQ, EQ를 넘어서 NQ라고들 말합니다. 인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기회는 적습니다. 이곳에서 20대 풀 타임학생들과 4~50대 파트타임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순수함과 열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대학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영컨설팅학과에 와서 현재까지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멘토도 만났습니다. 신입생 누구에게나 2년 혹은 3년이라는 시간은 주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엇을 얻어가는지는 각기 다릅니다. 저의 멘토이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원 졸업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누구든 얻게 되는 것이다. 경쟁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그 기간동안 남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이죠..입학하시는 후배님들께 저희 경영컨설팅학과가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생 인터뷰-석사 4기 최소연



대학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대학원 1기 때 밤새서 과제하고 프로젝트 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서울수업을 가기 위해 랩실에서 밤새 동기, 선배들과 공부하고 과제했던 기억과, 2기에 올라가서 진행했던 신입생 OJT인데 이를 진행하며 저의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하였고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셨던 선배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가해 주셨던 후배분들에게 감사하고 감동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실에 비해 우리 연구실 장점

저는 박광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2년 동안 공부 하였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느낀 장점으로선 파트 분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신년회와 송년회, 워크숍의 행사로 많은 만남의 장이 마련되며 그 자리에서 많은 조언과, 지식 및 정보교류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 기술혁신 유형 분류체계 개발 및 연구개발 정책과제 발굴' 프로젝트와 동시에 9월에 하반기 취업준비를 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도시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취업 후에도 선후배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겨 정보교류와 친목을 활성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

대학원 전체 측면에서 선후배, 파트 및 풀타임 간 교류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속해있는 분들끼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으며 친목도모가 이루어 지지만, 연구실간의 교류를 정기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으로 만나기 힘든,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졸업생 인터뷰 - 석사 4기 김태형



대학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학부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전공하는 회계학 역시 학부 때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컨설팅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제 전공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보완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실에 비해 우리 연구실 장점

다른 연구실의 경우 학과의 커리큘럼에 맞춰 프로젝트나 컨설팅을 중심으로 업무가 배분되고 연구도 진행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있는 연구실은 회계학에 집중되어있어서 좀 더 학문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소 세미나도 논문 리딩과 해석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 통계나 영어논문 연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장점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현재 박사과정 진학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후기에 금융보험학과에서 회계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공부를 좀 더 오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사과정 진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

아무래도 논문작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배경지식을 갖고, 조금 더 많은 논문을 읽고, 조금 더 통계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다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하루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생활하라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소감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후회가 많이 남지만 부족함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은 짧고 해야 할 건 너무 많습니다.

2013년 하계 KOTRA 인턴

-일시 : 2013년 7월 ~ 8월

-장소 : 두바이, 호치민, 프놈펜, 마닐라 (총 4개국)

-지원자 : 총 9명

파견국가	지원자		
두바이	정용운	김진하	김준현
호치민	한유정	방지영	
프놈펜	강민구	김명미	김진리
마닐라	천민경		

2013년 하계 KOTRA 인턴 참가자 소감 - 베트남**석사 2기 한유정**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석사과정 2기 한유정입니다. 작년 가을학기에 입학하고 어느덧 1년이 지나 이번 여름방학에 KOTRA 해외인턴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인턴과 해외 인턴 중에서 고민을 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해외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된 4개의 나라 중에서 베트남 무역관에 배정이 되었으며, 배정된 후에는 베트남에 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익히 들었고, 수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도 짧은 1달동안 여행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만, 좀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기대도 됩니다. 향후 제가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해외에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벼운 일이라도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석사 1기 방지영

안녕하세요. 2013해외인턴으로 베트남(호치민)에 가게 된 석사1기 방지영입니다. 베트남은 이번 해외인턴을 계기로 처음 방문을 앞두고 있지만, 저에게는 매우 친근한 이미지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중국대학에 머물 당시 제 주변에는 베트남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으며 친절을 베푸는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다보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호치민 무역관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 및 무역 확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인턴기간 동안 코트라(KOTRA)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알아가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 및 무역 확대를 위해서 호치민 무역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업무 파악의 틀을 잡는 것을 이번 해외인턴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감(五感)을 통하여 현지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이번 해외인턴에 임하겠습니다.

2013년 하계 KOTRA 인턴 참가자 소감 - 캄보디아**석사 3기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계해외인턴 KOTRA 캄보디아 무역관에 배정된 석사 3기 강민구입니다. 캄보디아는 지리적 위치만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낯선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환경과 문화는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저에게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지 적응을 위한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동안 학교에 배웠던 지식들을 실무영역에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향후 캄보디아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인턴기간이 심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의 저의 진로에 있어서 자산이 될 경험의 편린이라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석사 1기 김명미

안녕하세요. 석사 1기 김명미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로 코트라 단기 인턴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였기에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번 코트라 해외무역관 인턴을 하며 실무적인 일들을 배울 기회가 생겨 기쁘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책임감 등을 익히고 이해해보는 알찬 인턴생활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번 인턴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만큼 일과 사람 환경을 즐겨보자는 것이 저의 각오이며,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 1기 김진리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1기 김진리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벌써 석사과정이 1/4이나 지나갔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학사를 휴학없이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른 분들과 달리 인턴경험이나, 직장 생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트라 인턴이 더욱 긴장이 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과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하계 KOTRA 인턴 참가자 소감 - 두바이**석사 2기 김진하**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학과 2기를 끝마친 김진하 학생입니다. 이번에 코트라 해외 무역관 단기 인턴에 선발되어 기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교양수업을 통해 두바이 사막의 기적' 시청각 자료를 접하고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두바이 쇼크 이후 두바이 경제가 많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두바이에 진출하는데 있어 코트라의 교두보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코트라 인턴은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되어 여느 기업보다 업무나 현장 실습에 있어 실제적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 경험을 통해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며, 교두보 역할에 있어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사 1기 김준현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학과 석사 1기 김준현입니다. 15주간의 첫 대학원 생활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한 학기 동안 좋은 결실을 맺으셨는지요? 이번 방학 전 동기들 사이서 "핫" 이슈는 바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약 1~2달 동안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일도 배우고 현지의 생생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귀중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높았고 관심 있어 하는 곳을 가기 위한 사전 탐색전도 치열했습니다.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UAE 지역 중 UAE(두바이)를 택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에 가는 만큼 많은 걱정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한국도 더운데 5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제일 걱정입니다. 잘 버틸수 있을지 벌써 눈앞이 어찝합니다. 비록 여러사정상 1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나가게 되었지만 짧은만큼 더욱 집중하여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2013년 하계 KOTRA 인턴 참가자 소감 - 필리핀

석사 2기 천민경

안녕하세요, 석사 2기 천민경입니다. 2013년 하계 단기연수에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가는 국가라 기대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출국전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턴기간이지만 그 동안 KOTRA에 한양대학교가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도록 성실하게 생활하고 오려 합니다. 특히 지금은 필리핀 문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정확한 일정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인턴 일정 동안의 큰 목표만 여러 개 세웠습니다. 현지인 친구 만들어서 문화 이해하기, 따갈로그 배워오기, 영어 공부하기, 주변 여행지 다녀오기 등등.. 가장 중요한 건 치안문제도 있는 만큼 스스로 몸 챙겨서 무사무탈 건강하게 다녀오는 거겠죠.^^ 이번 하계 단기연수가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험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송별회 및 종강파티

6월 14일(금) 저녁 8시, 졸업생 송별회 및 종강파티가 진행되었다. 졸업을 앞둔 선배님과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을 마친 원생들이 모인 이번 자리는 조출해 보였을지 몰라도, 한 학기 동안 함께 고생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7월 행사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 석·박사 학위논문 마감	6
7 ★ 코트라 무역관 (두바이) 인턴 출국일	8	9	10	11 ★ 코트라 무역관 (호치민,마닐라) 인턴 출국일	12 ★ 코트라 무역관 (프놈펜) 인턴 출국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학기 휴학생 복학신청						
28	29	30	31			
★ 2학기 휴학신청						

[7월 초]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

[7월 5일] 석·박사 학위논문 마감

[7월 22일~26일] 2학기 복학신청

[7월 29일~8월2일] 2학기 휴학신청